

장애인교육부문의 성과와 추진방향

Education for Disabled People: Progress Assessment and Future Direction

1. 서론

우리나라의 주요 법률상에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타인에 의해 혹은 제도적으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장애인 관련 조사나 연구들에서 보면, 장애인들은 교육, 결혼, 취업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낮은 교육수준은 취업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장애인복지의 최종목표인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 이렇듯 장애인에게 있어 교육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취업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교육권은 헌법(제31조)과 교육기본법(제2조~제4조)에 명시되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권을 가장 널리 보장하고 있는 일반 규정이 되고 있다¹⁾.



金成禧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1) 헌법 제31조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홍익인간을 기본이념으로, 국민의 인격도야와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교육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3조와 4조에서는 능력과 적성에 따른 평생교육 권리와 신체적 이유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기회균등을 보장함.

그러나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된 것은 『특수교육진흥법』(1979년)으로, 장애인 교육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장애인의 의무교육과 조기교육, 개별화교육, 통합교육 등 장애인의 교육을 보장하는 각종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법적 정비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그 동안 산발적으로 발표되어온 복지, 교육, 고용 등의 각종 장애인복지시책을 연계시킨 중·장기종합계획인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1997~2002)을 수립·발표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특히 장애인 교육부문의 추진계획들은 장애인의 교육을 기존의 사립특수학교에 의존해 왔던 것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어 높이 평가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중 교육인적자원부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교육부문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5개년계획이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2. 장애인 교육(특수교육)의 개념 및 기본방향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여기에서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기관과 일반학급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치료기관, 가정 등에서 특수학교 교원이 순회하거나 파견되어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비는 유치원,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으로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과정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은 장애학생이 언제, 어디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는 통합교육에 두고 있다. 실제 만 3세 이상의 장애아동은 누구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을 하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학교의 순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2001년 4월 현재 만 3세 이상의 아동 중 특수교육을 희망하는 아동 53,896명이 특수학교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내의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표 1. 특수교육 현황(2001년 4월 현재)

(단위: 개교, 학급, 명)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특수학교	134	2,712	24,380	4,519
특수학급	3,040	3,846	26,815	3,857
일반학급	-	-	2,701	-
계	3,174	6,558	53,896	8,376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2. 1.

3. 장애인 교육부문의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분야 중 교육부문에서의 기본 방향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21세기 복지사회형 장애아교육모형 정립이었다. 이는 종전의 완전취학 개념의 정책방향에서 교육범위 확대로, 그리고 2002년까지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100% 교육실시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교육부문에서는 주요 목표를 총 9개의 세부영역으로 나누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평생교육복지 지원관리체계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복지 지원관리체계는 「장애인평생교육복지지원망」

장애인 교육부문의
추진계획들은 장애인의 교육을
기존의 사립특수학교에
의존해 왔던 것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어 높이 평가된다.

구축과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의 설립·운영이 주된 내용이 된다. 「장애인평생교육복지지원망」은 장애인의 각종 검사결과, 치료이력, 학습경험, 직업교육 등에 대한 정보를 누계 수록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산망으로, 관리운영체계를 표준화하여 장애인을 접촉하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기록하도록 의무화하여 life cycle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치료 - 직업 - 보호분야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관련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곳으로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운영하고자 하였다.

② 장애아 교육기회 확대

장애아 교육기회 확대는 중도·경도장애아 교육기회, 장애유아 교육기회, 고등교육 기회 확대로 분류되어 세부 추진계획이 세워졌다. 중도장애아 교육기회 확대는 특수학교 신설과 중도 및 중복장애아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가정, 복지시설, 병원 등을 교실화하여 교사가 순회교육하는 적극적 교육서비스 모형인 재택교실 설치를 통해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경도장애아 교육대책은 현재 일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학습장애아, 경도정신지체, 경도정서장애아를 위한 통합교육모형인 학습도움실(resource room) 운영과 학습도움실 교사를 배치하여 대상아동 중 비수혜아동 전원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유아교육대책으로는 공립특수유치원의 시범설립 운영과 특수학교 등에 유치부과정 설치확대를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장애인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방송대를 활용한 원격학사제 운영, 재활전문대학 설립 확대, 장애인 교육시범대학 지정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③ 장애아를 위한 별도의 학제 마련

장애아를 위한 별도의 학제마련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현행 무상교육 최대연한인 18년을 20년까지로 연장하는 장애아 무상교육 연한 연장, 학습단계의 적용이 무의미한 정서장애, 정신지체, 중도·중복장애 영역의 학생은 초·중등과정을 통합하여 12년제로 운영하는 12년통합운영제 도입, 그리고 연중 수시입학제 및 수시방학제 운영 등으로 제시되었다.

④ 직업교육 강화

장애인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전담부서의 설치, 장애정도 및 유형에 적합한 직업교육과정 개발, 현장중심의 직업교육과정 운영, 첨단 직업훈련실 설치 등이 제시되었다.

⑤ 교원양성체제의 개선

특수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개편, 대학원 중심의 교원양성체제로 전환, 특수학교 교원 채용시 필요한 경우 유치원, 초등, 중등 구분없이 채용하는 초·중등 자격제한 완화, 그리고 학습도움실 교사, 치료교사, 특수유치원 교사 양성과정 신·증설 등이 세부추진계획이었다.

⑥ 특수교육시설의 선진화

특수교육시설의 선진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특수학교의 선진화 모델 개발과 부족 및 노후시설·설비를 개선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⑦ 행·재정지원체제 강화

특수교육 운영비를 연차별로 증액지원하는 등의 특수교육재정의 안정적 투자체제 확립과 특수교육예산 투자실적 사후평가제 강화, 그리고 교육청의 특수교육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을 세부추진계획으로 세웠다.

⑧ 특수교육 관계법령 정비

학교급별, 장애영역별 학급당 학생수, 교원배치 기준 보완 등의 『특수교육진흥법』(1997) 개정과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및교원자격및임용에관한규정』 등 기타 관계법령의 정비를 제시하였다.

장애인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전담부서의 설치, 장애정도 및 유형에 적합한 직업교육과정 개발, 현장중심의 직업교육과정 운영, 첨단 직업훈련실 설치 등이 제시되었다.

⑨ 사회적 지지망 구축

사회적 지지망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교육청별로 '장애인 이해의 달'을 지정·운영하는 것과 장애인 학생에 대한 자원봉사 및 교육복지 지원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장애인학생 자원봉사인력은행」 설립이 제시되었다.

3. 장애인 교육부문의 주요 추진실적 및 평가(1998~2001)

1) 추진실적

① 장애아동의 교육기회 확대

특수교육기관의 증설이 이루어져 특수학교의 경우 1997년 114개교이던 것이 2001년 현재 134개교로 20개교가 증설되었고, 특수학급의 경우는 1997년에 3,626학급이던 것이 2001년에는 3,846학급으로 220학급이 증설되어 장애아동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었다.

또한 장애유아의 조기교육기회가 확대되었는데, 유치원과정의 특수학교가 10개교 신설되었고, 특수학교의 유치부 109학급, 유치원 특수학급 60학급이 증설되었다. 그리고 장애학생의 고등교육기회가 확대되었는데 이는 장애학생 대학 특별전형입학 대상자가 36개 대학의 276명이던 것이 54개 대학 421명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2002년 3월 개교예정인 한국재활복지대학이 설립될 예정이며, 대학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② 통합교육 실시의 기반구축

통합교육 실시를 위해 기존의 특수학교 중심에서 일반학교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체계를 전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일반학급 배치가 2,701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통합교육이 확대 실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특수학교와 인근 일반학교를 연계한 부분통합교육을 실시하였고, 특수학급의 시간제 운영을 통한 통합교육을 25,022명(전체의 93.3%)에게 실시하였다.

그리고 시·도 및 지역교육청별로 통합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여 2000년에는 29개교이던 것이 2001년에는 56개교로 확대되었고, 2000년 통합교육 우수시범

학교 사례발표를 10개교에서 행하였다.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연수를 23개과정에 3,2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특수교육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선택가산점을 부여하는 우대책을 마련하여 2002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③ 특수교육의 내실화 추진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자격증 소지율을 1997년에 54.4%이던 것을 75.1%로 올렸고, 동일 기간동안 특수교육 자료를 70종 186,555부 개발·보급하였다. 또한 특수교육교원 연수기회가 72과정 8,690명에게 확대되었다.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고등학교 과정 졸업후 전공과를 설치·운영하여 29개교의 812명에게 교육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특수학교 직업교육 담당교사의 연수를 560명에서 실시하였다.

④ 특수교육 여건의 개선

특수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예산을 3370억원(1997)에서 4063억원(2001)으로 증액하였으며, 특수학교의 시설·실습기자재 및 장애학생 보장구를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립특수학교의 실습기자재 확충비를 5개교에 26억원 지원하였고, 사립특수학교의 노후 및 협소교실 신축비를 29개교 283실에 49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보장구 지원을 위해 2,815명에게 16억원을 지원하였고,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119억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추진실적 중의 하나는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1998년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신청서류의 간소화, 특수학급 설치기준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1999년 개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입학지원 거부 및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거부시 벌칙조항 신설 및 범칙금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0년 개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신청서류에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를 포함시켜 장애인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

특수학교의 경우
1997년 114개교에서
2001년 134개교로
증설되었고,
특수학급의 경우는
1997년 3,626학급에서
2001년 3,846학급으로
증설되어
장애아동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었다.

하였고, 특수교육 담당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인사관리기준이 개정되었다.

⑤ 장애인 평생교육체제 구축 운영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원격특수교육 방송연수를 7개 자국(11과정, 1,905명)에서 실시하고 있고,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특수교육정보자료의 제공, 장애인 교육·복지·재활·고용에 관한 정보자료 제공, 특수학교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24개교에 지원해 주었다.

또한 장애인 평생학습제도를 마련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개 기관을 장애인 관련 학습은행제 실시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이며, 2개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장애인 관련 강좌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이료(理療) 전문학사학위를 2001년부터 신설하였다.

⑥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각종 행사 및 홍보자료 발간을 통한 개선(213건, 749,254명)이 이루어졌고, 특수교육기관 입학절차 및 홍보가 5,422건 이루어졌으며, 장애인에 대한 학생봉사활동(3,044교의 195,248명)이 이루어졌다.

2) 평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따른 교육부문의 추진실적은 위에서 제시되었듯이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법의 제·개정, 행·재정지원, 교육기회 확대, 교육과정 개발 등 세부추진 목표하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왔다. 그러나 4년이 지나 5개년계획을 마무리하려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추진시책들을 평가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장애학생의 교육기회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이 그 동안 많이 설치되어 왔으나 아직도 부족한 편이며, 특히 장애유아 대상의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하다. 그리고 편의시설이 공공기관 중심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는 추세이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의 편의시설 설치는 아직 저조한 편이어서 실제로 대학에 입학하였다 하더라도 강

의실까지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둘째, 통합교육 실시기반이 미비하다. 통합교육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의 물리적 환경이 미비하고, 학교관리자와 일반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며, 더불어 일반학생과 학부모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셋째, 특수교육의 내실화가 저조한 편이다.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율이 높아지긴 했으나 아직 저조한 편이며, 장애 정도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미흡한 상태이다. 그리고 장애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시설도 많이 설치되고 재정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열악하다.

넷째, 특수교육의 여건이 열악하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시설과 설비가 부족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편이며, 특수교육 관련 재정이 증가되고는 있으나 아직 열악한 수준이다. 또한 특수학급의 교재, 교구 및 교단의 선진화를 위한 기자재의 보급이 미흡하다. 특히 사립특수학교의 경우는 행·재정적 지원체제가 미흡하고 영세하여 더욱 열악한 상태이다.

다섯째, 장애인정책 관련부처간 협조체제가 미흡한 상태이다. 특수교육 관련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보건복지부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4. 장애인 교육부문의 향후 추진계획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이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 교육부문의 실적을 알아본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반면에 미비한 부분도 많이 지적되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2년에서 2004까지의 특수교육발전계획을 마련, 새로이 시작되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교육부문의 수립을 준비 중에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발전계획에 의한 향후 추진계획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교육부문 향후 추진계획의 기본 방향은 첫째,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고, 둘째, 특수교육여건 개선 및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질적 수준 제고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의

장애인 교육부문의
향후 추진계획의
기본 방향은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특수교육여건 개선 및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질적 수준 제고이다.

한 세부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완전 취학과 학습권 보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완전 취학과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무상·의무교육제도 홍보, 의무교육대상자 중 미취학 특수교육대상자의 실태 파악 및 교육대책 마련,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배치 철저 등을 세부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다.

② 장애유아의 조기교육기회 확대

장애의 조기발견, 조기 통합교육, 교육시설·설비의 확충 등 장애유아의 조기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대책 마련과 장애유아의 전원 취학 및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장애유아의 통합교육 기반조성 및 유아특수교육기관 확대, 유아특수교육 전공교사 및 치료교육 담당교사 배치 확대, 장애유아의 조기진단·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장애유아 조기교육기관의 활성화를 세부 추진방향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유아(만 3~5세)의 무상교육 실시, 조기통합교육 및 유아특수교육기관의 확대, 장애유아교육 담당교사 신규임용시 유아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 우선 배치,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치료교육담당교사 배치 확대 및 교육시설·설비의 확충, 운영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③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교육기회 제공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 또는 무상교육 실시, 장애학생의 취학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기관 확대, 장애학생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한국재활복지대학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취학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중증·중복장애아동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위한 한국재활복지대학의 개교를 계획하고 있다.

④ 통합교육 실시기반 구축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는 통합교육 실시기반을 구축하고, 통

합교육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특수학급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정원 증원 등을 통한 통합교육여건 마련, 통합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 확대, 일반교사들에 대한 특수교육 연수 확대,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확충, 일반학생 및 학부모의 이해증진을 위한 계도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⑤ 통합교육 시범학교 지정 운영

통합교육의 내실화 기반 구축 및 확대 실시와 통합교육 현안 문제점 개선 및 특수교육 현장의 지원강화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 및 사례발표, 보고서 발간과 통합교육 우수시범학교 및 교원 표창 등을 세부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다.

⑥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확충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통합교육의 내실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장애학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한다. 즉, 신설 초·중·고등학교에는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기존 학교에는 연차적으로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⑦ 교육과정 운영철저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과 학교교육과정 수립·운영을 철저히 하고 개별화교육, 직업교육, 치료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⑧ 특수학교 직업교육 담당교사 연수 실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직업교육 강화 및 특수학교 직업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특수학교 직업교육 내실화를 통한 장애학생의 취업률 제고를 목적으로 2004년까지 특수학교 중·고등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 또는 무상교육 실시, 장애학생의 취학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기관 확대, 장애학생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한국재활복지대학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교사 2,400명 전원에게 직업교육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⑨ 특수교육 교원 현직 연수 추진

특수교육 교원의 연수를 통한 전문성 함양 및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연수, 직무연수, 국외연수 등 특수교육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⑩ 특수교육 여건 개선계획 추진

특수학급 및 사립특수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특수교육의 내실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수학급 교실 적정 배치 및 내부환경 개선,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재·교구 확충, 사립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⑪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장애학생의 다양한 배치형태에 따른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를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즉,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2004년까지 180개로 설치·확대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⑫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특수교육기관의 시설·설비확충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의 내실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 강화, 특수교육 장학협의 기능 강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시설 확충, 특수학교(급)의 설비·비품 확충을 추진하고자 한다.

5. 기타 추진사항

특수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완전 취학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수교육발전 5개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수학교장 워크숍,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 발표대회 등 특수교육 관련행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장애인 및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홍보자료집 발간·보급, 장애체험 및 봉사활동 전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6. 결 론

장애인에게 있어 특수교육은 2차장애(정신·심리적 부적응)와 3차장애(실업)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 방법에 의한 교육을 통해 학교 및 사회생활도 가능하게 해준다. 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을 통해 직업을 가지게 됨으로써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게 해주며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장애인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사회통합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일회적인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으로 머물게 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구체적인 추진계획하에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진일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1998~2002)에 의해 추진되어온 교육부문의 실적들을 보면 주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기관 확충 및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법령 정비와 제도의 마련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지금까지 마련된 제도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특수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처간, 특수교육 관련기관간 연계·협력체계 구축과 교육권 확보의 수단이 되는 편의시설 설치의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평생교육체제안에 포함될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교육부문의 실적들을 보면 주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기관 확충 및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법령 정비와 제도의 마련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지금까지 마련된 제도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표 1. 장애인교육부문의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¹⁾

세부계획	5개년계획 주요 내용	추진 실적(1998~2001)	향후 추진 계획(2002~)
장애인 평생 교육복지 지원관리 체제 구축	1. 「장애인 평생교육 복지지원망」 구축 2. 「장애인교육복지 정보센터」 설립·운영	1. 「장애인 평생학습제도」 마련 - 장애인 관련 학점은행제 실시기관 지정운영(2개기관), 대학내 평생교육원에 장애 관련 강좌 개설(2개대학), 의료전문학사학위 신설(2001) 2.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인 교육복지정보센터」 설치·운영 - 원격특수교육 방송연수 실시: 7개 자국 구축(2001), 특수학교 홈페이지 제작지원(24개교),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도입 및 정착(2004년까지)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확대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확대(2004년 180개) 및 기능강화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육지원체제 강화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 강화, 특수교육 장학협의 기능 강화, 특수학급 설비·비품 확충 - 자원봉사자 중심의 보조교사 활용 2.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 운영 강화
장애아 교육기회 확대	1. 특수학교와 재택교실 설치를 통한 중도장애아 교육기회 확대 2. 학습도움실 운영과 교사 배치를 통한 경도장애아 교육기회 확대 3. 공립특수유치원의 설립 운영과 특수학교 등에 유치부과정 설치·확대를 통한 장애유아 교육기회 확대 4. 원격학사제 도입, 재활전문대학의 설립 및 확대, 장애인 교육시범대학 지정·운영을 통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1. 특수학교 증설: 114개교(1997) → 134개교(2001) 2. 특수학급 증가: 3,626학급(1997) → 3,846학급(2001) 3. 장애유아조기교육 확대 - 유치원과정 특수학교 10개교, 특수학교 유치부 증설: 158학급(1997) → 267학급(2001), - 유치원 특수학급 증설: 5학급(1997) → 65학급(2001) 4. 장애학생 고등교육기회 확대 - 대학특별전형입학 대상자 증가: 36개 대학 276명(1997) → 54개 대학 421명(2001), 대학의 편의시설 설치 확대	1.2. 특수교육기관 설치 확대(2003년까지 특수학교 5개교, 특수학급 985학급 증설) 3. 장애유아 조기교육기회, 장애유아 무상교육 실시, 유아특수교육 전공교사 및 치료교육 담당교사 배치 확대, 장애유아의 조기진단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장애 유아 조기교육기관의 활성화 4. 장애학생 고등교육기회 확대,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실시, 한국재활복지대학 설립(2002. 3.) 운영 <input type="checkbox"/> 완전취학과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 대상자의 무상 의무교육제도 홍보 - 의무교육대상자 중 미취학 특수교육대상자의 실태파악 및 교육대책 마련 -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배치 철저
장애아를 위한 별도학제 마련	1. 장애아 무상교육 연한 연장 2. 12년 통합운영제 도입(정서장애, 정신지체, 중도·중복장애) 3. 연중 수시입학제 운영 4. 연중 수시방학제 운영		<input type="checkbox"/> 교육과정 운영철저 - 제7차 교육과정 시행 철저, 학교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 철저, 개별화교육, 직업교육, 치료교육 강화

표 1. 계속

세부계획	5개년계획 주요 내용	추진 실적(1998~2001)	향후 추진 계획(2002~)
직업교육 강화	1. 직업능력개발 전담부서 설치 2. 장애정도 및 유형에 적합한 직업교육과정 개발 3.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과정 운영 4. 첨단 직업훈련실 설치	2. 직업교육과정 개정: 직업교과 8개, 전문선택교과 5개 3. 전공과 설치(고등과정 졸업후 운영): 29개교, 812명(2001)	1. 직업교육시설의 확충 지원 2. 장애학생 전환과정 지원모형 및 자료개발 연구
교원양성 체제 개선	1. 특수교사양성대학 교육과정개편 2. 대학원 중심 교원양성 체제로의 전환 3. 특수학교 교원 채용시 초·중등 자격제한 완화 4. 학습도움실교사, 치료교사, 특수 유치원교사 양성과정 신·증설	1.2.4. 특수교사 양성대학 18개교, 특수교육대학원 3개교 18전공, 특수교육관련 전공 설치 교육대학원 32개교(2001) -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자격증 소지율 증대(54.4%~75.1%) - 직업교육 담당교사 연수 실시(560명)	- 특수학교 직업교육 담당교사 연수 실시(2004년까지 2,400명)
특수교육 시설 선진화	1. 특수학교 선진화 모델 개발 2. 부족 및 노후시설·설비 개선	2. 특수학교 시설 - 실습기자재(5개교, 26억원) 및 장애학생 보장구 지원(16억원) - 사립특수학교의 노후·협소교실 신축비지원(41억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보장구 지원(16억원) - 환경개선사업 지원(119억원)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육 여건개선 - 특수교육여건개선계획 수립·추진, 편의시설 확충 2. 특수학급 교실 적정 배치 및 내부환경 개선, 특수학교·학급의 교재와 교구 확충, 사립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특수학교 2002년 21억원),
행·재정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재정의 안정적 투자체제 확립 및 특수교육 예산 투자 실적 사후평가제 강화 2. 교육청의 특수교육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	1. 특수교육재정 증가: 3,370억원(1997) → 4,063억원(2001) 2. 16개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배치, 180개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배치(2001)	1. 특수교육비 예산 확대 2. 특수교육 전담조직 및 인력을 전공자로 배치, 보강
특수교육 관계법령 정비	1.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2. 기타 관계법령 정비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교원자격 및 임용에 관한 규정 등	1. 「특수교육진흥법」개정(1998~2000)	
사회적 지지 구축	1. 교육청별 '장애인 이해의 달' 지정·운영 2. 「장애인 학생자원봉사 인력은행」 설립	<input type="checkbox"/> 사회인식개선사업 - 각종 행사 및 홍보자료 발간을 통한 개선(213건), 특수교육기관 입학절차 및 홍보(5,422건), 장애인에 대한 학생봉사활동(3,044교)	<input type="checkbox"/> 통합교육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확대 - 홍보·자료집 발간·보급, 장애체험 및 봉사활동 전개 - 일반교사, 교원,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계도 및 교육

표 1. 계속

세부계획	5개년계획 주요 내용	추진 실적(1998~2001)	향후 추진 계획(2002~)
통합교육 실시기반 구축		<input type="checkbox"/> 통합교육 실시기반 구축 - 특수학교 중심에서 일반학교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체계 전환(2,701명) - 특수학교·특수학급의 통합교육 확대 실시(25,022명) - 시·도교육청별 통합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56개교) - 통합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연수 실시(23개과정, 3,248명) - 특수교육 담당교사에 선택가산점 부여(우대책), 연수 실시	<input type="checkbox"/> 통합교육 실시기반 구축 - 학급당 학생수 감축, 특수교육 교원정원 증원 -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 교육청별 통합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 확대 - 일반교사들의 특수교육 연수 확대,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확충 - 통합교육교사 연수기회 확대

주: 1) 주요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의 동일번호끼리가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며, □는 새로 추가된 세부사업내용임.